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심의·확정

전북도, 사회보장위 개최
보육 공공성 강화 등
5대 추진전략 제시

등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61개 세부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문 및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고

제4기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자체사업의 다양한 발굴을 통해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기 전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심의·확정하고, '행복과 공감의 포용적 복지공동체 전북'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중점추진사업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주민의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지역의 복지환경과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4년간(2019~2022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등을 발굴한 계획이며, 지난 5월에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5개 분과별 TT팀 회의,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를 거쳐 최종 보고회까지 전체 7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복지분야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제4기 계획(안)은 지역주민 1,1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통하여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였고,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와 함께 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최종 계획안에는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자립역량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인돌봄안전망 구축 및 장애인자립역량 강화' 등 5대 추진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9개 중점추진사업과 61개 세부사업이 제시되었다.
제4기(2019~22년) 중점사업으로 현 정부의 국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정책 및 복지사업 확대에 인한 정책방향에 맞게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지정 운영과 노인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해 독거노인 통합돌봄체계 구축, 거점경로당 지정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기반 마련과 마을단위 민관 커뮤니티케어 구축



전북대학교 제17대 이남호 총장 이임식이 13일 전주시 전북대학교 기인홀에서 실시된 가운데 이남호 총장(가운데)이 학생들과 손타트를 그리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대만의 브랜드, 우리 모두의 것”

제17대 이남호 전북대 총장 이임식

지난 4년 간 전북대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이끌어 온 제17대 이남호 총장이 13일 진수당 기인홀에서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쳤다.
이날 이임식에는 이 총장과 함께 대학발전을 이끌어왔던 본부 보직자를 비롯한 교수, 직원, 학생, 그리고 이용규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해 지난 4년의 공적을 되새기고 감사 인사를 나눴다.
개교 70주년 기념 영상 상영으로 시작된 이날 이임식에서는 감재민 전 교학부총장이 송공패를 증정했고, 이용규 총동창회장은 감사패, 그리고 교직원과 학생 대표가 꽃다발을 건네며 그간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남호 총장은 재임 기간 동안 '성장을 넘어 성숙'을 대학 운영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삼아 정체성 없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전북대만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의 문화적 자산과 동행하는 가치를 제고해 이끌어 온 제17대 전북대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캠 퍼스 둘레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모험인재 양성', 세계적 7대 대학발전을 이끌어왔던 본부 보직자를 비롯한 교수, 직원, 학생, 그리고 이용규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해 지난 4년의 공적을 되새기고 감사 인사를 나눴다.
특히 재임 중 역사적인 개교 70주년 맞아 70년 역사를 되새기는 개교 70년사를 편찬하고, 70주년 기념광장과 대로 등을 조성하는 등 지역과 함께하는 대규모 기념사업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또한 취임과 함께 대학에 약학대 학유치추진단을 신설하며 대학의 오랜 숙원이었던 약학대학 유치에 적극 나섰다. 천연 농산물 기반형 신약개발 분야를 선점할 연구 중심 약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다양한 아젠다를 만들어냈고, 최근 약대 유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를 받으며 기대감을 높이

고 있다.
이남호 총장은 "오늘 이 자리를 임기를 모두 마치고 떠나는 것을 축하받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껏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며 "교수와 직원, 학생, 그리고 20만 동문, 그리고 200만 전북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그는 "재임 기간 중 모험인재를 키우고, 월드 클래스 학문 분야를 육성하며,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와 명품 둘레길 등을 조성하여 전북대만의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기반을 닦고자 했다"며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제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후손들을 위해 산을 옮긴 우공의 우직함처럼 당장의 이익을 좇기보다 전북대의 미래를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평교수로서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식품명인 이름 오르다

임실 박사골 옛날쌀엿 원이숙 대표... 19일 수여식

임실군 '박사골 옛날 쌀엿' 원이숙 대표(69)가 2018년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군은 원 대표가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80호로 지정, 도내에서는 12번째 식품명인으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식품명인은 식품제조·전통성과 정통성은 물론, 해당 식품기능의 계승 필요성과 그 보존가치를 따져 현장심사 및 심의회 절차를 거쳐 국가에서 지정한다.
전국 총 84명의 명인 가운데, 전라북도 식품명인은 12명으로 그 중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한민국 식품명인은 9명으로, 임실군 원 대표가 여기에 포함되는 영예를 안았다.
원 대표 등을 포함한 2018식품명인들은 오는 19일 서울시 전통식품문화관에서 지정서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원 대표는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깨끗

하고 질 좋은 쌀과 엿기름에 30년 경력의 손맛을 더해 박사골 옛날 쌀엿의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원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친할머니인故조부순 여사가 농한기 때나 집안 행사때마다 마을 부녀자들과 함께 엿을 만드는 모습을 어게너머로 보고 자랐다.
이 같은 집안의 풍습은 어머니인故유선순 여사로 이어졌고, 부업형태로 소규모로 제조하는 것을 시작으로 쌀엿을 품목으로 한 사업체로 성장,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원 대표가 식품명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북도와 임실군은 함께 쌀엿의 차별화된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향후 더 많은 향토음식들이 그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존과 전승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선관위, 조합장선거 예방·단속 대책회의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예방·단속역량의 집중 및 효율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위하여 '도 및 구·시·군위원회 단속지원 대책회의'를 13일 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 및 구·시·군선관위 지도·단속 책임자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속상황 점검 및 위반행위 억제에 대한 예방·단속활동 강화 등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전북선관위는 단계별 단속인력 확충 및 다양한 신고·정보채널 가동 등을 통하여 예방·단속체제를 구축·운영하는 가운데 조합원의 인식전환 등을

위한 안내·교육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러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금품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라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불법적인 금품수수 등의 경우 금품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게도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는 사안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체육회, 회원단체·사무처 임직원 직무연수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소통·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회원단체 및 사무처 임직원 직무연수'가 13일 무주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직무연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와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등 올 한해 개최했던 각종 체육대회를 결산하고 소통하기위한 자리다.
또 행복하게 일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회원단체와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직무연수에서는 윤리교육을 비롯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개인

정보보호 및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직무역량강화 및 리더십 교육 등이 진행됐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체육활동을 통한 직원들의 단합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향적봉도 등반했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상호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기위해 연수를 준비했다"며 "전북체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2019년에도 전북체육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